

보도

사과·소명에도 새터 후폭풍 여전, “학생회장단 사퇴하라” 요구도

문화대 새터 관련 논란

류제원 기자 jennyoo95@knu.ac.kr

【서울】 지난달 31일, 올해 초 논란이 된 문과대학의 새내기새로배움터(새터)에 대해 문과대학 학생회가 소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2017 새터 모든 것을 말씀 드립니다’란 이름의 대담회에서 문과대학 학생회 김기범(국어국문학 2015) 부회장이 나서 새터 결산내역을 공개하는 등 공개적인 해명에 나섰지만, 문과대학운영위원회 몇몇은 여전히 집행부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문과대 새터 이후 우리학교 페이스북 익명제보 페이스 “경희대학교 대신 전해드립니다(경대전)”에는 ‘경희대학교 49대 문과대학 학생회장단을 규탄합니다’라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온·오프라인 상에서 지적된 주요 문제로는 적자를 비롯해 일반 투숙객 난동, 중앙규찰대 운영 미숙, 그리고 침구류 부족 등이었다. 김 부회장은 “이번 새터 문제는 전적으로 학생회장단을 비롯해 중앙기획단이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 탓”이라며 “불편을 겪은 문과대 새터 참가자분들에게 죄송하다”며 공개 사과했다. 논란이 발생하고 약 4개월 만이다.

가장 문제가 된 ‘새터 적자’ 건은 예산 외 초과지출액 425만 원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문과대학 학생회는 “책임지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대담회에서 공개된 ‘2017 새내기 새로배움터 보고서용 총결산’ 자료에 ‘적자’로 표기된 초과지출액 대부분은 교비에서 지출됐다. 문과대학 학생회는 교비로 주가지출 된 335만 원에 대해선 사비로 행정실 측에 변제하고, 나머지 금액은 자치회비로 충당할 계획이다.



지난달 31일 열린 문과대 대담회에서 김기범 부회장이 논란에 해명하고 있다. (사진 = 류제원 기자)

그러나 공개된 자료에는 단순히 수입액과 지출액을 나열하고 ‘주가지출 항목 및 금액’만 명시돼 있을 뿐, 본래 예산안과 비교할 수 없어 신뢰도가 검증되지 않는다. 또한 항목 당 초과지출 된 정확한 액수를 알 수 없다는 허점이 존재한다.

김 부회장은 새터 기간 중 발생한 일련의 문제들에 대해 설명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인수인계를 꼼꼼히 하겠다”고 소명했다. 문과대학의 새터는 첫날 영어학부가 일반 투숙객과 같은 층을 사용하면서 학생과 일반 투숙객 사이에서 충돌이 발생했던 바 있다. 또한 예정된 중앙규찰대 인원이 모이지 않아 규찰대 운영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그리고 330여명이 참가한 새터 첫날 숙소에 구비된 침구류는 50여개에 불과하는 등 여러 문제가 있었다. 김 부회장은 해당 사안들이 발생한 경위에 대해서는 설명 했지만 이후 방안에 대해서는 “인수인계를 꼼꼼히 하겠다” 이상의 계획을 들을 수 없었다.

새터 직후 경대전에는 새터에서 발생한 일련의 문제들에 대해 ‘학생회장단이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 부회장은 이에 대해 언급하며 “사퇴에 대해서도 생각해봤지만 당장 이과대학 공실 사용 문제 등 문과대학이 당면한 문제가 많다고 생각했다”며 “이러한 과제들을 맡아서 함으로써 죄송한 마음을 전달하고자 사퇴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적극적인 입장표명 이후에도 문과대운영위원회 내부에선 사퇴요구가 진정되지 않고 있어 이후 문과대학 학생회 운영에 차질이 우려된다. 대담회에서 공개된 새터 관련 보고서는 문과대학 학생회 블로그와 페이스북 페이지, 각 학회실에서 열람 가능하다.

대학가 ‘악습’ 졸업반지, 간호대가 먼저 없앤다

간호대 졸업반지 폐지

류제원 기자 jennyoo95@knu.ac.kr

【서울】 간호과학대학 48대 학생회는 악습으로 불려온 졸업반지 제도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올해 졸업생부터는 졸업반지를 받지 않고 재학생들은 그동안 지출해야 했던 금액의 일부를 돌려받는다.

간호학과의 졸업반지는 선후배간 위계의 상징으로 여겨졌다. 지난 4월 6일 우리 학교 익명 커뮤니티인 ‘경희대학교 대나무숲(대숲)’에 ‘단돈 3만원에 제 양심을 팔 수 없습니다’라며 졸업반지를 비판하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간호학과 2학년이라 밝힌 작성자는 “더 이상 이런 악습을 두고 볼 수 없어 글을 썼다”며 “액수와 상관없이 정당한 절차와 설명 없이 원하지 않는 학생의 돈을 사용한다면 재산권 침해며 부당하고 부정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학생들은 “이런 문화가 아직도 있었나”는 댓글을 달았고, 졸업반지는 학내에서 비난의 대상이 됐다.

비난의 대상 졸업반지

“재산권 침해, 부당하다”

간호학과 학생회 진수현(간호학 2015) 회장은 “간호학과의 졸업반지는 누가,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모른 채 이십여 년째 전해왔다”고 설명하며 “이전부터 졸업반지를 폐지하자는 얘기는 있었지만 여론이 갈리는 등 쉽게 결정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지난 3월 간호학과가 자체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도 그랬다. 4학년을 대상으로 졸업반지 수령 찬반여부를 묻자 응답한 68명 중 53명이 졸업반지를 원해 간호학과는 올해도 졸업반지를 진행하기로 했다.

그러다 졸업반지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학내에 다시금 형성되면서 현 학생회장단을 비롯해 학과장, 학생주임, 행정실장 등이 모여 졸업반지 폐지를 결정했다. 진 회장은 “졸업반지 문제는 예전부터 계속된 것이니만큼 올해는 해결을 보자는 마음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폐지 결정 후에도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간호대학 학생회 정지섭(왼쪽) 봉사국장과 진수현(오른쪽) 회장

(사진 = 류제원 기자)

가장 큰 이유는 그동안 재학생이 지출해 온 돈의 환불 방안이었다. 매년 간호 학과 1, 2, 3학년 재학생은 학년별로 각각 35,000원, 30,000원, 30,000원을 지불한다. 이 돈을 모아 해당년도 졸업생 반지를 마련하는 방식이다. 한 학년이 80~90명에 달하기 때문에 각 학생이 그동안 지불한 돈을 돌려주려면 1,500여 만 원이 필요한 셈이다.

학년 높을수록 폐지 반대

공금으로 손해 보전하기로

학생회가 내놓은 대안은 학생들이 얼마간의 손해를 떠안는 방식이다. 학과 내 5월 초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1학년의 95.8%, 2학년의 70.7%, 3학년의 63.2%, 4학년의 56.1%가 손해를 전제로 한 졸업반지 폐지에 찬성했다. 진 회장은 이에 대해 “학년이 높을수록 그동안 낸 금액이 많아 보상심리가 나타난 것 같다”고 해석했다. 반지사업 전반을 담당하는 정지섭(간호학 2014) 봉사국장은 “설문조사 결과 개인당 손해액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 학생회비에서 1인당 5,000원을 지원하

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올해, 내년도 축제 수익금 등도 사용할 예정이다.

결과적으로 올해 졸업을 앞둔 4학년은 55,000원을 돌려받는다. 1, 2학년의 경우 5월에 25,000원 씩 반환이 완료됐다. 3학년은 예산 부족으로 인해 내년에 25,000원을 돌려받는다. 진 회장은 “3학년에게 지급할 금액은 내년 축제 수익금으로 충당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즉 2, 3, 4학년의 경우 40,000원, 1학년은 10,000원을 손해 보는 셈이다.

신지우(간호학 2016) 양은 “우리가 손해를 본 건 맞지만 지금이라도 폐지된 게 기쁘다”며 “우리 과의 발전을 위해 기부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익명을

요구한 한 2학년 학생은 “지금까지 이 전통을 없애지 않고 후배들에게 폐만 끼친 선배들은 부끄러워해야 한다”며 “특히 대숲에 졸업반지를 비판하는 글이 올라왔을 때 졸업반지를 두둔하던 댓글들이 오히려 많았다”라며 비난했다.

끝으로 진 회장은 “간호학과 외에도 비슷한 사례를 가진 과 아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우리 간호대의 졸업반지 폐지가 좋은 선례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한국어·외국어 전문 교육기관

외국어강좌

경희대학교 국제교육원

접수기간

◆ 정규 외국어강좌(6주): 2017. 7. 3.(월) ~ 8. 11.(금) ◆ 접수기간: 2017. 6. 12.(월) ~ 2017. 6. 30.(금)

Level Test

◆ 영어회화: 6. 27.(화), 6. 28.(수) 17:30 ◆ 일본어·중국어·스페인어회화: 6. 27.(화) 17:15

강의시간표

영어회화	시간	오전반 07:45~08:45 (월~목)	오후반 18:00~19:20 (월, 수, 목)				
	레벨	Beginning / Intermediate / High Intermediate / Advanced	Beginning / Intermediate / Advanced				
영어 레벨업	수강료		150,000원				
	시간		오후반 14:00~16:00 (화)	오후반 18:00~20:00 (화)	오후반 18:00~19:30 (화)		
	레벨	Academic Writing Workshop	Business English Skills Series				
일본어	수강료		120,000원				
	시간	오전반 07:45~08:45 (월~목)	오후반 18:00~20:00 (월, 수)	오후반 18:00~20:00 (화, 목)			
	레벨	초급1 / 초급2 / 중급1 / 중급2 / 고급	초급1 / 초급2	중급1 / 중급2 / 고급			
중국어	수강료		150,000원				
	시간	오전반 07:45~08:45 (월~목)	오후반 18:00~20:00 (월, 수)	오후반 18:00~20:00 (화, 목)			
	레벨	초급1 / 초급2 / 초급3 / 중급1 / 중급2 / 고급	초급2 / 초급3 / 중급2	초급1 / 중급1 / 고급			
스페인어	수강료		150,000원				
	시간	오전반 07:45~08:45 (월~수)	오전반 09:00~10:30 (화, 목)	오후반 17:30~19:00 (화, 목)	오후반 09:00~10:30 (월, 수)	오후반 17:30~19:00 (월, 수)	
	레벨	초급1	초급2	초급1	초급1	중급1	
프랑스어	수강료	90,000원		120,000원			
	시간		오후반 18:00~20:00 (화, 목)	오후반 18:00~20:00 (월, 수)			
	레벨		초급1		초급3		
독일어	수강료		150,000원				
	시간		오후반 17:30~18:50 (월, 수)	오후반 19:00~20:20 (월, 수)	오후반 18:30~19:50 (화, 목)		
	레벨		초급1	초급2	초급3		
이탈리아어	수강료		120,000원				
	시간		오후반 18:00~20:00 (월, 수)	오후반 18:00~20:00 (화, 목)			
	레벨		초급1		초급2		
	수강료		150,000원				

Tel. 02) 961-0081~82 http://www.iee.ac.kr

LEAP Program

가. 접수기간: 1차-2017. 6. 1.(목) ~ 6. 21.(수) / 2차-2017. 6. 1.(목) ~ 7. 19.(수)
나. 강의기간: 1차-2017. 6. 26.(월) ~ 7. 20.(목), 4주 / 2차-2017. 7. 24.(월) ~ 8. 18.(금), 4주

다. 프로그램 일정

	1차	2차
LEVEL TEST	2017. 6. 21.(수) 17:00	2017. 7. 19.(수) 17:00
입교식	2017. 6. 26.(월) 10:00	2017. 7. 24.(월) 10:00
Game Day	2017. 7. 6.(목)	2017. 8. 3.(목)
수료식	2017. 7. 20.(목) 13:00	2017. 8. 18.(금) 13:00
모집인원	한 반 정원 15명	
강의대상	LEAP 초·중급 영어 구사자 LEAP Advanced 중·고급 영어 구사자	
수강료	Half-Day Course (오전+오후): 330,000원 Full-Day Course(오전+오후): 595,000원	

※ 1,2차 연속 수강 시: 국제교육원 외국어강좌 장학 혜택 부여

라. 강의시간표